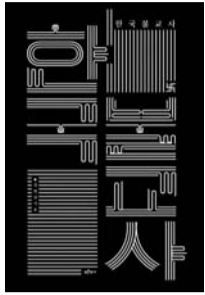


‘한국 불교’ 1700년의 흐름과 진수 집대성

한국 불교사
정병삼 지음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것은 4세기 후반이다. 1700여 년이 흐르는 가운데 불교는 역사와 문화, 사회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민간신앙으로, 더러는 나라를 지키는 호국의 역할을 담당했다. 그만큼 불교를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을 만큼 불교의 영향은 지대했다.

역사는 오래됐지만 불교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2011년 현재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만 조계종을 비롯해 20여 종단이 소속돼 있지만, 이들 종단의 유래를 아는 이들은 드물다.

우리의 역사를 알기 위해선 불교의 역사를 아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 17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한국 불교가 어떻게 이어져왔는지 고찰하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고구려에서 20세기까지 한국 불교의 흐름과 진수를 집대성한 책이 나왔다. 숙명여대 정병삼 역사문화학과 명예교수가 펴낸 ‘한국불교사’는 한국불교사를 아우르는 ‘통사’다. 고승대덕의 사상에서 명찰의 문화까지 담겨 있어 우리 불교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저자는 시대를 토대로 사상과 정치와 문화를 덧입혀 다채로운 서술을 시도했다. 1부 ‘삼국시대-불교의 수용’에서부터 8부 현대 ‘한국 불교-산업사회시대 불교의 지향’까지 시대를 나눠 불교와 왕실, 정치적·사회적 역할을 정리했다.

백제 무령왕이 경약을 인도에 보내 계율학을 배워오게 한 점, 신라 법흥왕과 진흥왕이 일시적으로 출가하는 사신(捨身)을 행한 일 등, 쉽게 접할 수 없는 내용들이 나온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 입체성을 들 수 있다. 사상과 경전, 문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불교사를 다뤄 다면적으로

불교를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저자는 불교를 유교와 도교, 토착신앙과의 관계에서 접근한다. 토착신앙은 수천 년 동안 우리민족의 심성에 강한 영향력을 끼쳤다. 먼저 수용된 유교에 비해 불교는 종교적 성격이 강했기에 다소 갈등관계에 놓였다. 그러나 불교 초기에 삼국의 국가는 서로 토착신앙의 영향이 달라 수용 상황이 달랐다.

“불교는 토착신앙을 배척하거나 완전히 밀어내는 대신 서로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삼국 사회에 무난하게 뿌리를 내렸고, 이후 점차 토착신앙을 대체하면서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왔다.”

두 번째는 불교와 국가의 관계를 호국의 관점을 넘어 사회적 통합의 관계로 조명한다. 저자는 ‘호국불교론’은 식민지 시기 일본 근대 불교학에서 제시한 논리라고 본다. 근대에는 호국과 호법을 넘어 국가의 안녕을 위한 다양한 종교활동의 연장선으로 접근한다.

“불교의 사회적 역할은 국가발전과 왕권강화의 측면에서 서만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배체제와 불교 교단의 관계, 지역과 계층 간의 간격을 좁히는 통합 이념으로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세 번째로 저자는 추복과 현세신앙의 관점으로 불교를 이해한다. 즉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기 원하는 것은 추복(追福), 기복에 연관된 것으로 이런 바람 또한 종교 속성의 하나다.

저자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상층민은 그들대로, 일상의 삶을 유지하기에도 힘든 기층민은 그들대로, 바람직한 삶에 대한 온갖 형태의 기원을 토대로 개인과 사회의 공동선에 이바지하는 바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불교는 조화와 융성을 도모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였다. 불교는 다른 지역에서 수용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전통이나 종교와 크게 마찰을 일으키지 않았다(신라 이차돈의 순교는 신라의 사회적 상황에서 기인했다). 각 시기에 따라 성격이 다른 여러 불교사상을 조화, 융합해



수월관음도. 세상을 살면서 부딪히는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의 바람을 들어주는 관음보살을 그린 고려 불화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각기 다른 내용의 사상을 제시했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푸른역사·3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쓰다... 또 쓰다 = 수필과 글쓰기, 삶과 세상,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박상철의 수필집이다. 수십 년간 독자들과 대상을 강연한 내용과 더불어 지난 몇 년간 신문, 잡지, 웹진, 페이스북 등에 쓴 글을 한데 엮었다. 저자는 책을 통해 참된 작가란 ‘오로지 어떤 경우에도 독자를 의식하지 않고 그냥 쓰는 사람일 뿐’이라고 당부한다.

<특별한서재·1만3500원>
▲유리로 된 아이 = 독일 부모들이 가장 신뢰하는 아동 심리, 자녀교육 전문가인 소아정신과 전문의 미하엘 빈터호프 박사가 지난 10여 년간의 가족 상담 사례와 소아청소년 정신발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유리로 된 아이’를 어떻게 하면 ‘단단한 내면을 가진 아이’로 키울 수 있는지 알려준다. 유아기부터 10대 사춘기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의 평균적인 정신 발달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담았다. <쌤애파커스·1만5000원>

▲견디는 힘 = 내일을 위해서 불확실한 오늘을 버티는 5가지 기술을 알려준다. ‘현재의 나와 마주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자기 확신을 위한 공부를 하는 것’. 저자는 이 기술을 내 몸과 정신에 장착해 삶의 무기로 만들라고 조언한다. 또 견디는 것은 그저 꾀꾀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



다. 내일을 생각하며 달리고 넘어지고 뛰 어오르면 오늘은 견뎌야 함을 강조한다. <빌리버튼·1만4500원>

▲남부 유럽 도시 기행 = 지리학자로서 일상 속 지리와 관련한 교양서를 집필해 온 저자 이정환이 여행자로써 경험한 남부 유럽의 열두 도시를 담아낸 책이다. 저자는 이탈리아의 국경을 넘어 남프랑스의 망통을 시작으로 모나코, 에제, 니스, 마르세유, 엑상프로방스, 아를, 아비뇽, 몽펠리에,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세비아 등 12도시를 여행했다. 저자는 여행하며 느낀 감상과 사유를 담담하게 이야기한다. <푸른길·1만8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콩닥콩닥 처음 유치원 = 처음으로 유치원에 가는 꼬마 요괴가 두려움을 떨쳐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그렸다. 엄마, 아빠 없이 낯선 환경에서 새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야 하는 두려운 마음이 꼬마 요괴라는 캐릭터를 탄생시켰다. 책 속에 등장하는 꼬마 요괴는 처음 유치원에 가는 아이들의 불안한 심리를 대변하며 낯선 환경에 마주해야 하는 아이들이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책과콩나무·1만2000원>

▲원숭이 기차 = 길고 긴 철로 위에 원숭이가 모는 원숭이 기차가 있다. 숲 정거장에 정차해 있던 원숭이 기차가 출발 신호를 알리자 코끼리, 북극곰, 판다, 산양, 기린 등 수많은 동물 친구들이 서둘러 기차에 올라탄다. 다양한 손님이 멋진 추억을 만들어 가는 원숭이 기차의 하루를 통해 각 동물의 특징을 보여준다. <주니어RHK·1만2000원>

▲멍멍이는 멍멍이 = 아이가 아빠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며 만나는 다양한 개들을 소개한다. 털이 복슬복슬한 개, 침을 많이 흘리는 개, 수줍음이 많은 개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개들을 선보인다. 비글, 불독, 푸들, 요크셔테리어 등 비교적 잘 알려진 품종을 비롯하여 실루키, 바이마라너, 라사알소 등 낯선 품종까지 모두 38종의 개를 글과 그림으로 묘사했다. <창비·1만3000원>



웃다가도 코 끝이 찡해지는 음식 에세이

아침을 먹다가 생각한 것들

나라 잃은 백성처럼 마신 다음 날에는

이대해·미강 지음



민음사 출판그룹 브랜드 ‘세미콜론’이 새로운 시리즈를 론칭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하고 싶은 마음’을 캐치프레이즈로 담은 ‘땡 시리즈’다. 손에 잡히는 아담한 문고판의 이 시리즈는 ‘음식’을 소재로 한 에세이다. 소재는 하나의 음식이나 식재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음식을 아우를 수도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필자들이 다양한 음식 이야기를 자유롭게 유쾌하게 풀어낸다. 시리즈 첫번째로 두 권이 한꺼번에 나왔

다. ‘조식’을 주제로 한 ‘아침을 먹다가 생각한 것들’과 ‘해장음식’을 주제로 한 ‘나라 잃은 백성처럼 마신 다음 날에는’이다. 제목에 끌려 먼저 집어든 책 ‘나라 잃은 백성처럼 마신 다음 날에는’은 저자와 주변인들의 다채로운 에피소드와 묘사 등이 어우러져 시종일관 웃음을 터뜨리게 한다. 웹툰 ‘술꾼도시여자들’의 저자 미강이

쓴 책은 ‘아무튼. 술’로 화제를 모은 김흔 비 작가의 평에 따르면 ‘평소 성실하고 철저한 과음으로 최악의 숙취 상태를 유지해 온 미강 작가의 해장 음식살림기다.’

‘뽕뽕 뽕뽕 뽕뽕’ 시그널 음악과 함께 송해가 등장하는 인기 TV프로 ‘전국노래자랑’을 패러디해 적어내려간 글 ‘전국-해장국 자랑’이나 자신이 사랑하는 3대 해장국을 소개한 ‘불멸의 해장 음식 삼대장’을 읽다보면 어디서 저런 유머 넘치는 글쓰기가 나오는 지 저자는 폭소를 참을 수 없다. 또 ‘나 양평해장국세권엔 산다’에서는 맛있는 양평해장국을 찬양하고 콩나물 해장국 등 전통의 해장 음식 뿐 아니라 커피와 햄버거, 라면까지 다양한 종류의 해장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웃음만 있는 건 아니다. 아빠와 함께 먹

은 순댓국 이야기나 에필로그에 등장하는 술친구와의 에피소드는 코끝이 찡해진다. 씨네 21기자이자 북클럽니스트로 활동 중인 이대해가 쓴 ‘아침을 먹다가 생각한 것들’은 아침식사와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가장 좋아하는 조식은 잠’이라고 말하는 1인 생활자 저자는 음식 이야기 뿐 아니라 영화 ‘미드웨이’, ‘미성년’ 등 영화를 통해 조식에 대한 단상도 들려준다.

여행지 호텔에서 몰려오는 잠을 무릅쓰고 내려가 먹은 조식, 직장인의 길거리 토스트, 어린 시절 소꿉날에 할머니가 이른 아침부터 짜주시던 김밥 등 다채로운 이야기가 담겼다.

앞으로 서호인 시인의 ‘직장인의 점심시간’, 호원숙의 ‘엄마 박완서의 부엌’, 박찬일 셰프의 ‘자장면’, 고수의 ‘고동’, 의사 정의석의 ‘정원의 밥’ 등이 출간될 예정이다. <세미콜론·각권 1만12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균등분할상환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신협 815 해방 대출은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 상 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 출 기 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 환 방 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균등분할상환
대 출 한 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 출 금 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p>신협 815 해방 대출</p> <p>신협 815 해방 대출</p>	<p>신협 815 해방 대출</p> <p>신협 815 해방 대출</p>	<p>신협 815 해방 대출</p> <p>신협 815 해방 대출</p>	<p>신협 815 해방 대출</p> <p>신협 815 해방 대출</p>	<p>신협 815 해방 대출</p> <p>신협 815 해방 대출</p>
---	---	---	---	---